



## 1층에서 가볼 만한 곳

**2 장-마르탱 드메질 (Jean-Martin Demézil) 시청각실**  
방에서 연속적으로 상영되는 두 개의 컴퓨터 그래픽 영상은 성 방문에 매우 유용한 소개 영상입니다.  
상보르, 건축의 꿈: 성의 역사와 건축에 관한 2부작 영상 (총 18분)  
상보르, 건축의 꿈: 성의 역사와 건축에 관한 2부작 영상 (총 18분)

**1 이중 나선형 계단과 내성 구조**  
의심할 여지 없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서 영감을 받은 이 중앙 계단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내성 중앙에 있는 이 계단은 창들이 돌린 중심축을 중심으로 한 계단이 다른 계단을 에워싸는 형태로 만들어진 두 개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계단을 오르다면, 각자 다른 계단으로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는 동안 창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로를 볼 수는 있으나, 절대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 계단을 둘러싸고 있는 방들은 그리스 십자가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방들을 통해 내성 모서리에 있는 옛 거주지에 갈 수 있습니다. 상보르성에서 시도한 또 하나의 매우 혁신적인 건축법: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교회 건설에 쓰이던, 그리스 십자가형의 중앙 집중식 평면을 사용했습니다.



**3 6 7 8 접견실들**  
성의 1층에 '부르봉 왕가의 방'(3), '위대한 인물들의 방'(6) 및 '사랑의 방'(7)이라고 불리는 3개의 대형 접견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냥을 주제로 한 그림과 조각품, 상보르성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18세기와 19세기 왕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4 18세기 주방들**  
내성의 서쪽 거주지에 있는 방들은 1782년부터 식사 준비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옛 식사준비실, 제과실, 식료품 저장실 및 과일 저장소를 둘러보면서 18세기 말 상보르성의 총독이었던 폴리냐크(Polignac) 후작의 주방 세계에 빠져보세요. 후드, 빵을 굽는 오븐 및 옛날 물건들이 진열된 대형 주방을 꼭 둘러보세요.

**9 10 마차실과 라피데르 보관실**  
왕실 날개 부분의 1층에는 세 대의 베를린 마차, 쿠페형 마차 그리고 사슴마차 칼레슈루 구성된 특별한 마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9). 1871년 상보르 백작이 훗날 왕으로서 파리 입성을 위해 의뢰한 마차들로, 결국에는 사용되지 않아 우수한 상태로 보존되었습니다. 날개 부분의 또 다른 특별한 공간: 상보르성의 채광 된 원본 파편과 같은 성의 옛 석재 장식들이 보관된 라피데르 보관실이 있습니다(10).

## 천재의 세계로 들어와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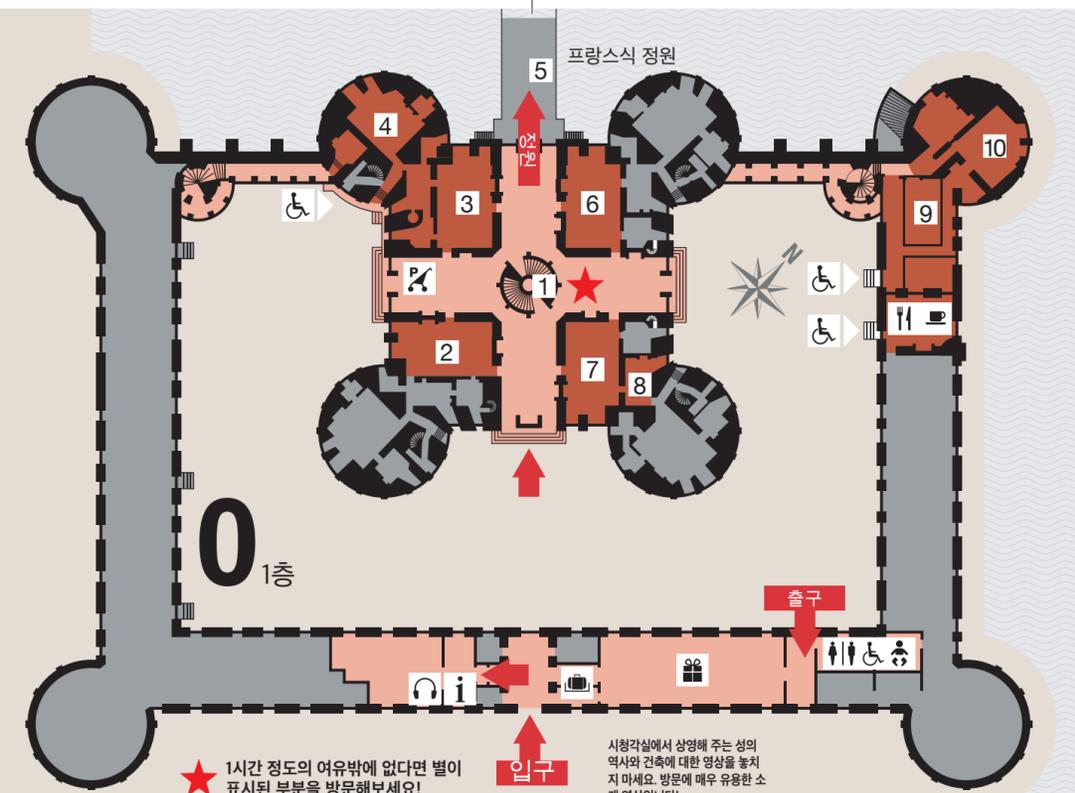
상보르성은 르네상스의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프랑수아 1세가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 1519년에 착공한 이 성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최고의 예술가, 건축가, 석공 장인의 협력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천재적인 작품입니다. 상보르성은 거주용 성 또는 정부의 성, 더 나아가 사냥용 별장 그 이상으로 건축적 유토피아, 이상, 조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프랑수아 1세, 앙리 2세, 루이 14세가 각각 사냥을 즐기거나 손님 접대 또는 건축 현장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궁정인들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18세기에는 때때로 왕의 측근들이 성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적통 부르봉가의 마지막 후손, 상보르 백작 앙리의 사유지가 되었으며, 1세기 후인 1930년에 프랑스 정부가 구매합니다. 상보르성의 모든 소유주는 프랑수아 1세의 열망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사상이 곳곳에 녹아있는 이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보석 보존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 상보르성 방문하기

상보르성은 방문 방향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을 자유롭게 다니다가 길을 잃어도 경이로운 이중 나선형 중앙 계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건축물이 설계되었습니다. 왕실 아파트와 거주지를 둘러보며 다양한 시대의 성의 삶으로 들어가 보세요. 방문은 정원과 상보르성 영지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테라스에서 끝이 납니다.

예배당 날개 왕실 날개

156 m 너비의 대형 정면  
400개 이상의 방  
77개의 계단  
282개의 벽난로  
56m의 높이  
500년 된 성



★ 1시간 정도의 여유밖에 없다면 별이 표시된 부분을 방문해보세요!  
시청각실에서 상영해 주는 성의 역사와 건축에 대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방문에 매우 유용한 소개 영상입니다!



★ 1시간 정도의 여유밖에 없다면 별이 표시된 부분을 방문해보세요!  
새롭게 장식된 왕의 순회 궁정과 프랑수아 1세의 아파트들을 둘러보세요.

## 2층에서 가볼 만한 곳

**1 2 프랑수아 1세의 거주지 (16세기)**  
왕실 날개 부분의 2층에 있는 왕실 거주지는 1539년에서 1545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80m²의 넓은 침실(1), 옷방, 집무실, 프랑수아 1세의 상점이 조각된 둥근 천장을 갖춘 화려한 기도실(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개 부분에는 '왕의 알현실'이라 불리는 성의 옛 공회당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9년에 왕실 거주지의 일부가 대대적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골풀자리로 된 벽과 바닥, 대형 커튼과 정교한 테파스트리, 여행용 가구 및 진귀한 물건들이 있는 이 방들에서 왕과 그의 궁정인들이 머무는 동안의 성의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3 왕비의 방 (17세기)**  
왕실 날개 부분이 건축되기 전 프랑수아 1세의 첫 침실이었을 수도 있는 이 방은 오늘날 17세기 스타일의 침실로 개조되었습니다. 루이 14세가 체류하는 동안, 오스트리아의 왕비 마리 테레즈, 그 후의 왕세자비[왕위 계승자, 왕세자의 아내]가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4 페레이드 아파트 (17-18세기)**  
루이 14세의 페레이드 아파트는 1680년경 성의 대형 정면 중앙에 지어졌습니다. 태양왕의 상징적인 위치! 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내성 2층의 구조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중앙 계단으로 연결된 북서쪽의 큰 방을 막아 다음의 4개의 방을 만들었습니다:근위병실, 두 개의 대기실 그리고 페레이드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후에 성에 머문 이들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는 풍부한 장식과 가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루이 15세는 실제로 그의 장인 스타니슬라스 레친스키(Stanislas Leszczynski) 그리고 삭스(Saxe) 사령관이 몇 년간 상보르성에 머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 다 옛 페레이드 아파트에 거주하였습니다. 현재의 방들은 18세기 중반의 묘사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6 예배당**  
250m² 규모의 예배당은 성에서 가장 큰 공간입니다. 탑 그리고 서쪽 날개의 직사각형 부분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외부에서 보면 예배당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축은 프랑수아 1세 시대에 시작되었지만 1세기 반 후 루이 14세의 통치 아래 완공되었습니다. 조각된 장식에서 예배당 건축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벽의 바닥에서부터 둥근 천장까지 프랑수아 1세(파와 불도마뱀), 그의 아들 앙리 2세(가꾸로 된 초승달) 그리고 태양왕(과 태양)의 상징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상징들을 찾으셨나요?



**5 7 18세기 아파트들**  
내성의 서쪽과 남쪽 구역에는 18세기 스타일의 가구와 장식으로 꾸며진 다양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총독의 방'(5), '월계수의 방'(7a) 그리고 '콘티(Conti) 공주의 방'(7b). 방들의 배치는 르네상스 및 위대한 세기(Grand Siècle)에 비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내부에 목재 벽을 덧대고 회반죽 천장으로 방들의 공간이 축소된 모습입니다. 테라코타 바닥은 나무 바닥으로 교체되었으며 벽은 벽지, 패브릭 및/또는 장식 판자로 덮여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이루어진 이러한 개조를 덕분에 상보르성의 상시 거주자들이 더 편안한 공간을 누리고 더 효과적으로 난방할 수 있었음을 살펴보세요!

**8 루이 14세의 극장**  
17세기, 오락과 연극이 상보르성에 머물렀던 태양왕과 그의 궁정인들의 저녁 시간을 장식합니다. 내성 2층에 중앙 계단을 마주 보고 소극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몰리에르는 이곳에서 자신의 창작물, 특히 코미디-발레인 푸르소낙씨(Monsieur de Pourceaugnac) (1669)와 서민귀족(Le Bourgeois gentilhomme)의 초연을 선보입니다(1670). 루이 14세의 극장 출입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옛 극장을 연상시킵니다. 새로운 공연이 막 시작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상보르 백작 박물관**  
7개의 방으로 구성된 이 '박물관'은 19세기의 불행한 프랑스 왕위 계승자, 상보르 백작의 놀라운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앙리 드 부르봉(Henri de Bourbon)은 그의 출생 시 국가적인 기쁨 모으기를 통해 상보르성과 공원의 소유자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삶을 망명 생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1821년부터 대중에게 개방된 상보르성의 복원, 유지 및 성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자기 재산을 바칩니다. 이곳에 수집된 수백 개의 물건은 역사적 유산의 보존에 전념하고자 한 고난의 세기의 중심에 있던 왕자와 삶과 상보르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 유용한 정보



평소에 일반에 공개되는 일부 방들이 예고 없이 폐관될 수 있습니다. 방문 규정은 성 입구와 상보르성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 남몰과 수집품에 대한 손상으로 기소 및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접근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안내지도 보기): 안내데스크 / 매표소 / 내성 1층과 그 방들 시청각실 / 마차실 / 카페 / 화장실 / 상점  
지팡이와 휠체어는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안내데스크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견은 증명 자료를 제시하면 성 내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게 개조된 버전의 가이드 태블릿 HistoPad는 상층에 있는 방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청각 장애에 적합한 디지털 증대 도구 HistoPad (특히 프랑스 수화(LSF) 해설 포함)  
시청각실: 5개 국어로 된 자막이 있는 영상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시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증대 도구 HistoPad (프랑스어 오디오 설명 버전)  
부르봉 왕가의 방에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성의 축소 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성 3층에 있는 르네상스 거주지에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둥근 천장 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모차는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안내데스크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상보르성 방문에 재미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가이드 투어 (시간 30분) •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해서 집중 가이드 투어 (3시간) • 방학 및 공휴일에 한해서 재미있는 가이드 투어 (1시간 30분) • 단기 방학 동안 가족을 위한 아틀리에 • 성 또는 정원에서의 풀어보는 볼도 마뱌 카산드라의 수수께끼 책 • 가이드 태블릿 HistoPad.



## 3층에서 가볼 만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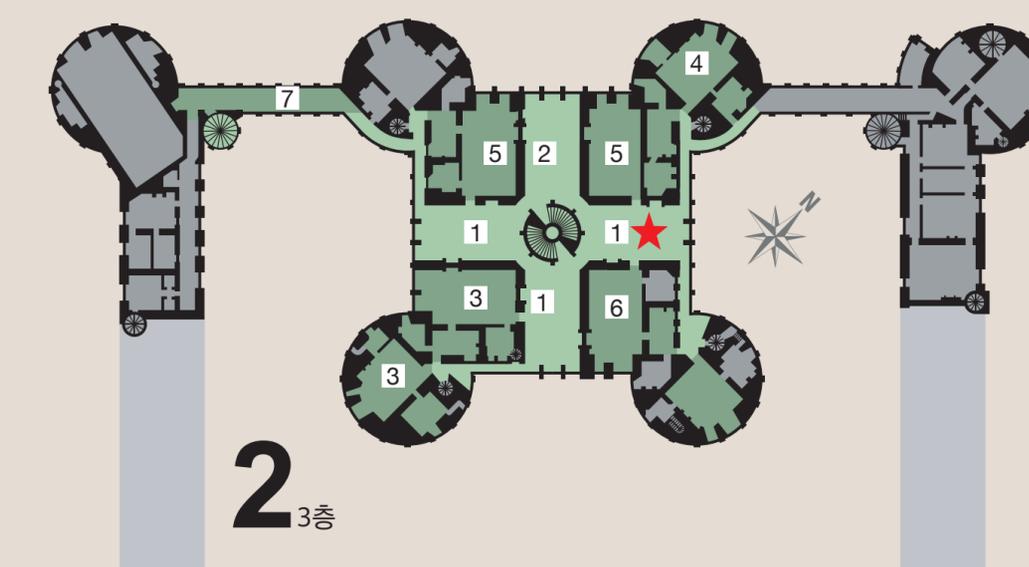
### 1 2 둥근 천장의 방들과 삭스(Saxe)

**사령관의 극장**  
내성의 3층에는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그리스 신화가 모양으로 배열된 4개의 방이 있으며, 격자 조각 장식의 거대한 둥근 천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고대 개선문이나 교회 천장을 형상화한 이 둥근 천장에는 모두 프랑수아 1세의 상징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상보르성 건축의 창시자를 찬양하는 왕관을 쓴 볼도마뱌와 알파벳 'F' 수백 개가 교대로 조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둥근 천장에 거꾸로 있는 유일한 신비한 알파벳 F를 찾으셨나요?  
힌트: 이것은 모리스 드 삭스(Maurice de Saxe) 사령관을 위해 극장으로 개조된 북서쪽 둥근 천장의 방에 있습니다(개조 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2).

**3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상보르성에서의 사냥**  
성의 남쪽 구역에는 상보르성의 오랜 전통인 사냥에 대한 상설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냥에 대한 왕의 관심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른 사냥 목적을 위해 사용된 영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고 귀한 테크스트리 시리즈 프랑수아 왕의 사냥과 19세기의 경이로운 사냥용 보트마차를 꼭 둘러보세요. 첫 번째 방의 연단에는 16-18세기 상보르성 공원에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동물들의 복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4 어린이 놀이 · 체험 공간**  
상보르성에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놀이 · 체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약 15개의 디지털 장치, 재미 있고 감각적인 경험과 놀이를 통해 성의 역사와 건축 그리고 프랑수아 1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알아보세요! 영유아(3~5세)를 위해서는 다채로운 놀이를 할 수 있는 호기심의 공간과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 6 7 임시 전시실들 - 르네상스 거주지 - 사냥 전리품 갤러리**  
북쪽과 서쪽 구역(5)에서는 문화 프로그램에 따른 현대 또는 문화유산 전시회들이 열립니다. 가구가 없는 동쪽 구역(6)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궁정인의 거주지를 구성하는 모든 방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옹 슈스터(Marion Schuster) 컬렉션(20세기)인 사슴뿔이 전시된 '사냥 전리품 갤러리'(7)라 불리는 예배당 날개 부분에 있는 갤러리를 놓치지 말고 감상해보세요.



**★ 1시간 정도의 여유밖에 없다면 별이 표시된 부분을 방문해보세요!**  
프랑수아 1세의 상징들이 조각된 웅장한 둥근 천장을 감상해 보세요. 주변 방들에서는 현대 또는 문화유산 관련 임시 전시회들이 열립니다.



## 테라스에서 가볼 만한 곳

### 1 2 성의 테라스

중앙 계단의 끝에 있는 내성 꼭대기의 테라스(1)에서는 성 영지, 마을 그리고 주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전망이 펼쳐집니다. 원뿔 모양 지붕의 원형탑과 정원의 길들을 보면 작은 천상의 도시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웅장한 모습이 장관입니다.  
성의 모든 탑의 지붕에는 돌출된 굴뚝, 천장, 포탑 및 채광창이 총총히 솟아있습니다. 성 윗부분의 풍부한 조각과 기하학적 모양의 슬레이트 장식들은 상보르성에 고딕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실루엣을 선사합니다. 이 모든 중심에 채광 탑(2)이 우뚝 서 있으며, 그 꼭대기에는 하늘을 향해 백합 문양의 왕관 장식이 얹혀 있습니다. 탑은 왕국의 중심에 있는 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 3 상보르성, 1939-1945: 세상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보존

1939년, 국립 박물관의 수천 점의 예술 작품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프랑스 중부 및 서부의 11개 성과 수도원으로 수송차를 통해 보내졌습니다. 이 시기의 상보르성은 대중에게 문을 닫았으며,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국가 또는 개인 소장품, 특히 루브르 박물관이나 베르사유 박물관의 수많은 걸작을 보관함으로써 프랑스에서 가장 큰 보관소가 되었습니다. 이 상설 전시에서는 혁신적인 설치 및 중재 장치(영상, 영상물 등)를 통해 인류의 보물을 보존하는 데 있어 상보르성의 주요 역할을 보여주고 여기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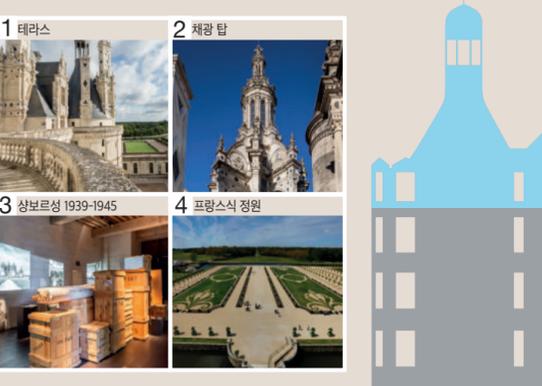
### 4 프랑스식 정원의 전망

테라스에서, 16년간의 과학적 연구와 뛰어난 복원 현장 작업을 통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복원된 상보르성 프랑스식 정원의 특별한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복원된 정원은, 일부가 1970년까지 남아 있었던 18세기에 사라진 정원의 정확한 배치를 재현하였습니다. 파르테르 잔디밭, 잘 정돈된 주목 정원과 꽃으로 장식된 화단, 산책로, 반듯하게 정렬되고 오정형으로 배치된 나무들로 이루어진 정원은 상보르성 그 자체처럼 대칭을 이루는 기하학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기 전, 테라스에서 시간을 내어 이 절경을 감상해보세요. 1층에서 정원으로 나가 산책로를 따라 산책할 수 있습니다.



**3 테라스**  
성의 테라스에서 화려한 고딕 양식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기이한 공존을 보여주는 지붕들의 정경뿐만 아니라 상보르성 영지의 정밀한 파노라마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 1시간 정도의 여유밖에 없다면 별이 표시된 부분을 방문해보세요!**



## 상보르성 역사 연표

1515 프랑수아 1세가 프랑스의 왕으로 즉위.  
1519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죽음.  
상보르성 건축공사 착공.  
1539 내성이 완공됨.  
프랑수아 1세가 카를 5세 황제를 성으로 초대.  
1545 프랑수아 1세의 상보르성에서의 마지막 체류.  
왕실 날개 부분 건설 공사 끝.  
1547 프랑수아 1세의 죽음.  
왕이 된 그의 아들 앙리 2세가 예배당 날개 부분 건설을 계속함.  
1556 공사 중단. 예배당 날개와 낮은 성벽이 완성되지 못함.  
1625 루이 13세의 동생, 가스통 도클레앙이 그의 특권에 따라 상보르성을 물려받음.  
1641-1642 성의 첫 번째 복원 공사.  
1660 가스통 도클레앙 공작의 죽음.  
상보르성이 다시 왕실 소유가 됨.  
루이 14세가 상보르성의 공원을 완성함.  
1684-1686 성의 왕궁 및 주변 개발 공사.  
루이 14세의 상보르성에서의 마지막 체류.  
1725-1733 루이 15세의 장인인 스타니슬라스 레친스키가 상보르성에 정착.  
프랑스식 정원을 조성함.  
1745 루이 15세가 모리스 드 삭스 사령관에게 상보르성을 하사함.  
1748-1750 삭스 사령관이 그의 기병 연대와 함께 성에 머무름. 이곳에서 사령관이 사망.  
1782-1789 공원과 성이 폴리나코 후작이 운영하는 왕실 종마 사육장에 위탁됨.  
1792 상보르성의 가구들이 프랑스 혁명 이후 경매로 판매했음.  
1809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상보르성을 바그람의 왕자 루이 알렉상드르 베르티에 사령관에게 수여함.  
1821 경매에 부쳐진 후, 상보르성은 정동 부르봉 왕가의 마지막 후손인 보르도 공작 앙리에에게 양도됨.  
상보르성을 대중에게 개방.  
1840 프랑스 역사 기념물 첫 번째 목록에 상보르성이 등록됨.  
1871 상보르 백작이 된 앙리 드 부르봉의 성에서의 유일한 체류.  
1883 왕세자의 죽음. 그의 조카들인 부르봉 파르마의 왕자들이 유산을 상속받음.  
1930 프랑스 정부가 상보르성 영지를 구매함.  
1939-1945 프랑스의 수집품, 수천 점의 예술 작품이 성에 보관됨.  
1981 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  
1997 성의 공원이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됨.  
2019 상보르성 건축 시작 500주년을 맞이함.



## 방문 안내지도 상보르성

